

농촌관광 민박 경영체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시사점

김 정 섭* 박 덕 병** 박 은 식***

Key words: 농촌관광(rural tourism), 마을(villag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of agro-touristic farm households in rural Korea. The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 and obtained from 104 agro-touristic farmers and 104 village people in twenty two rural villages from April 20, 2002 to November 21, 2002 and analyzed. With the research results, it has been shown that, even Korean government's efforts to diversify farm management somewhat contributed to improve small farms' income, it was difficult for farm householders to grow their businesses continuously due to the following restrictions; 1) the age of farm managers were old to expand their new businesses, 2) the pluriactivities of agro-touristic farm households were not enough to supplement their income, and 3) they were not so much willing to take the risk from expanding the scale of agro-touristic business. As such, we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s' policy makers consider to establish the policy goal of the rural tourism projects reasonably.

- 1. 서 론
- 2. 연구방법
- 3. 조사결과 : 농촌관광 마을 민박 경영체의 특성
- 4. 결 론

1. 서 론

정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농촌관광 마을 육성정책의 향후 진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과거 개별 사업자 중심의 관광농업 정책이 보였던 한계점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마을단위 정책사업은 관광자원의 다면적 이용, 관광체험의 다양성 확보, 투자위험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농촌관광 모델로 자리 잡을

* 지역아카데미 연구원

**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연구사

***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지도관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강신겸, 2002:122), 일부 정책 시범마을에서 거둔 그간의 성과가 성공사례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 농촌관광 시장에 대한 전망을 조사한 연구들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수요 측면에서 낙관적인 수치들이 제시되고 있다(정기환, 2001; 박시현 외, 2003).¹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이른바 ‘농촌관광 마을 육성 사업’을 대폭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² 2002년과 2003년 두 해 동안 1억에서 2억 원에 이르는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어 시범사업을 실시 중인 농촌관광 마을의 숫자는 71개에 이르고 있다(녹색농촌체험마을 44개소, 농촌전통테마마을 27개소).

하지만, 그 같은 대규모 공공투자의 정당성을 뒷받침해 줄 세밀한 근거자료나 명확한 정책목표는 찾아보기 힘들다. 향후 10년 동안 수백억 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농촌관광 마을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납세자들에게 설득력을 가지려면, 보다 명확한 정책목표와 전망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져 볼 수도 있다. 그 같이 정책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농촌관광 마을 민박 경영체들의 특성들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농촌관광 마을 민박 경영체들에 대한 조사 자료를 토대로 정책목표 수립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려 한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를 위한 조사는 2002년 4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모니터요원 제도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조사대상 지역은 농촌민박 경영체가 입지하고 있는 농촌마을 총 22개소를 도별로 안배하여 선정했다. 이 가운데 11개 마을은 정부의 농촌관광 육성 정책 시범마을로 지정된 곳이며(이하, ‘시범마을’이라고 부름), 나머지 11개소는 마을 단위의 정책보조금 투입이 없었던 곳으로 일반적인 농촌민박 마을이다(이하, ‘일반마을’이라고 부름).³

¹ 정기환(2001)은 한국관광연구원의 2001년도 국민관광수요예측 조사 자료를 인용하면서 2010년 경에는 총국민관광객수가 6억 명을 넘을 것이며, 이 중 60% 이상이 농촌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한편, 박시현 등(2003)은 2011년에 농가민박 수요가 약 700만 명에서 1100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² 이 글에서는 ‘농촌관광 마을 육성 사업’의 의미를 농림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과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한다.

³ 이 글에서 표현되고 있는 정부의 ‘농촌관광 육성 정책 시범마을’은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2003년 현재 44개소)과 농촌진흥청의 ‘농촌전통테마마을(2003년 현재 27개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을 말한다. 이 외에도 행정자치부의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과 ‘정보화 시범마을’ 사업, 산림청의 ‘산촌종합개발’ 사업,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마을’ 등 농촌관광과 관련하여 정책 보조금이 투입되는 마을들이 다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 채택한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의 사업과 비교할 때 농촌민박 경영체를 육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전국적으로 농촌민박 경영체들이

표 1 조사대상 농촌민박 마을

정부시범마을(11개소)	일반마을(11개소)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군량리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경기도 포천군 관인면 중리 교동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1리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4리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대리	인천광역시 중구 구의동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연곡리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장곡리
전라북도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공조리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경상남도 남해군남면 흥현리 가천	경상남도 하동군 화계면 법왕리
제주도 남제주군 성안읍 신흥리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광지

조사대상 지역의 농촌민박 경영주와 마을주민(민박을 하지 않는 일반 농가) 각각 104명 씩, 합계 2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모니터 요원이 조사대상 마을의 민박 경영체를 4~8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마을주민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마을마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경영체 수와 동일한 수의 일반 농가들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를 분석할 때 주로 카이-스퀘어(chi-square) 검증, t-검증, 일원변량분석 방법을 사용했으며, 통계 패키지로 SPSS WIN 10.0을 사용했다.

3. 조사결과: 농촌관광 마을 민박 경영체의 특성

3.1. 특성

3.1.1. 농촌민박 경영주들의 연령

일반적으로 민박을 중심으로 한 농촌관광 경영은 전통적인 농업생산 활동과는 다른 서비스 부문의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노동력의 인구학적 특성이 경영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어떤 인구학적 특성을 지닌 노동력이 농촌관광 경영에 있어 유리한 입지에 설 수 있는지를 밝힌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다만 비농업 종사 인구의 증가로 인한 농촌지역 사회의 인구학적 구성 변화가 농촌관광 등의 새로운 개발기회가 될 수 있다는 해외 연구 사례가 있을 뿐이다(Briden & Bollman, 1999). 농

집락해 있는 '농촌민박 마을'이 몇 개소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농협이나 한국민박협회 등의 자료를 참고로 할 때 최소 250여 개소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표 2 농촌민박 경영주들과 비민박 농가 경영주들의 평균 연령 비교

집 단	평균연령	표준편차	F값	LSD 사후검증			
				(1)	(2)	(3)	(4)
시범마을 민박농가 (N=48)	57.8	9.10	12.00***	(1)			
일반마을 민박농가 (N=56)	48.3	11.85		(2)	☆		
시범마을 비민박농가 (N=47)	49.0	11.46		(3)	☆		
일반마을 비민박농가 (N=56)	45.6	10.65		(4)	☆		

*** p < .001

촌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특성이란 해당 농촌지역사회 인구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 조명되고 있는 것이지, 개별 경영주체의 인구학적 특성과 경영성과의 연관성은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농촌민박 경영주들의 연령을 비민박 농가 경영주들의 연령과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정부 보조금이 투입된 시범마을의 농촌민박 경영주들의 평균 연령이 그 밖의 집단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차이의 원인은 무엇인가? 시범마을 민박 경영주들의 평균 연령은 우리 농촌의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 일반마을의 민박경영주나 비민박 농가 경영주들의 평균 연령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마을의 민박경영주들이 민박을 경영하게 된 것은 농촌민박의 상업적 전망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한

자발적인 참여인데 비해, 시범마을의 경우 정책 보조금 수혜를 계기로 마을 내에서 농촌민박 사업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유휴인력 동원의 관점에서 참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시범마을의 경우 젊은 농가경영주들은 이미 시설채소 등 농업노동 투입량이 많은 전업화된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농외 소득 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노동력의 여유가 있는 고령화된 농가들을 중심으로 농촌관광 마을 사업이 조직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1.2. 농촌민박 경영체의 가족구성

전형적인 복합취업(pluriactivity)⁵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는 농촌민박 경영체들에 있어서, 농가의 동거 가족구성 형태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동거 가족구성원 수가 많을수록 농업활동 외의 경제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노동력의 여유가 증가할 것이

⁴ 2002년 현재 우리나라 농가 경영주의 연령분포는 전체 농가 128만 호 중 50대가 경영주인 농가호수가 29만 9000호(23.3%), 60대가 72만 6000호(56.7%)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농림부 홈페이지 농림자료실, 농업기본통계: 경영주 연령별 농가, <http://www.maf.go.kr>

⁵ 농가가 농업활동과 여타 부문의 경제활동을 결합하여 영위하고 있는 경우를 복합취업(pluriactivity)라고 한다(Kinsella, J. et al, 2000; Fuller, A.M., 1990). 복합취업은 특히 농업경영 다각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농업활동을 근간으로 숙박이나 식사 등의 서비스를 겸하는 농업관광 경영이 그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표 3 정책시범마을과 일반마을의 농업관광 경영체 평균 동거가족수 비교

집 단	평균 동거가족수 (단위: 명)	표준편차	평균차	t값	df
시범마을 민박농가 (N=48)	2.94	1.42	0.6	-1.888	102
일반마을 민박농가 (N=56)	3.54	1			

p = 0.062

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동거 가족 구성 형태는 농촌민박 경영체의 성장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조사 대상 농촌민박 경영체들의 평균 동거가족수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통계적으로 크게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으나, 시범마을에 비해 일반마을의 농촌민박 경영체들에서 동거 가족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1.3. 농촌민박 경영체들의 농업생산 규모

경영체들이 수행하는 농업생산활동의 규모에 따라서 농외소득활동 기회의 폭이 달라질 것이다. 경영주 연령의 고령화, 동거 가족의 복합취업 기회 등과 같은 요인과 함께 경영다각화 정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변인이 농업생산활동 규모이다. 시범마을과 일반마을 농촌민박 경영체들의 평균 총경지면적(소유농지와 임차농지의 합)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시범마을 농촌민박 경영체들의 경지면적이 일반마을 농촌민박 경영체들에 비해 평균적

으로 약 2,000평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경지면적 차이는 일반마을의 농촌민박 경영체들이 영세한 농업생산 규모로 인한 소득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농가 생계전략의 일환으로 민박 형태의 농촌관광 시장에 진입했음에 비해, 농촌관광 시장에 뒤늦게 진입한 시범마을의 농촌민박 경영체들은 총경지면적이 많아 농촌관광 활동을 위한 노동력 투입 측면에서의 제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3.1.4. 농촌민박 경영체의 소득과 농외소득 비중

농촌민박 경영체들의 총소득에서 농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들의 경영다각화 정도를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시범마을과 일반마을의 농촌민박 경영체들 사이에 총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농외소득 비중 측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일반마을 농촌민박 경영체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볼 때 총소득의 절반 이상

표 4 정책시범마을과 일반마을의 농업관광 경영체 평균 총 경지면적 비교

집 단	평균 총경지면적 (단위: 평)	표준편차	평균차	t값	df
시범마을 민박농가 (N=45)	5057.8	5553.72	2041.18	2.195	65.957
일반마을 민박농가 (N=50)	3016.6	2992.65			

* p = 0.032

표 5 시범마을과 일반마을 농촌민박 경영체들의 평균 총소득과 농외소득 비중 비교

구분	시범마을	일반마을	표준편차		t	df	유의도	평균차
			시범마을	일반마을				
연간 총소득 (단위: 1만원)	1954.9 (N=45)	2077.2 (N=47)	1249.6	2435.0	-0.301	90	0.764	-122.3
농외소득 비중 (농외소득/총소득, %)	37.3 (N=41)	52.5 (N=41)	25.8	27.2	-2.599	80	.011*	-15.2

이 민박경영을 통해 얻는 농외소득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정부의 농촌마을 육성정책이 경영다각화 또는 농외소득 증대 측면에서 이룬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시범마을의 농촌민박 경영체들이 정부 정책보조금을 수혜받기 전 농업생산활동에만 종사할 시점에서 보면, 일반마을의 농촌민박 경영체들과 비교할 때 나타났던 소득격차를 정책사업을 계기로 진행된 농촌관광 경영을 통해 어느 정도 메워 가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즉, 정부 정책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마을의 소농 경영체들이 주로 민박 형태의 경영다각화를 통해 일정

정도의 농외소득 증대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농외소득 증대 추세가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여전히 미지수로 남겨져 있다.

3.2. 농촌민박 소득과 경영다각화에 대한 전망

경영주들의 연령차이는 어떤 함의를 제공하는가? 고령화된 민박 경영주와 젊은 민박 경영주들 사이의 경영능력의 차이를 검증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그림 1>에서 보듯이, 일반마을의 민박 경영주들은 시범마을의 경영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

그림 1 농촌민박 경영주들의 연령과 민박소득(N=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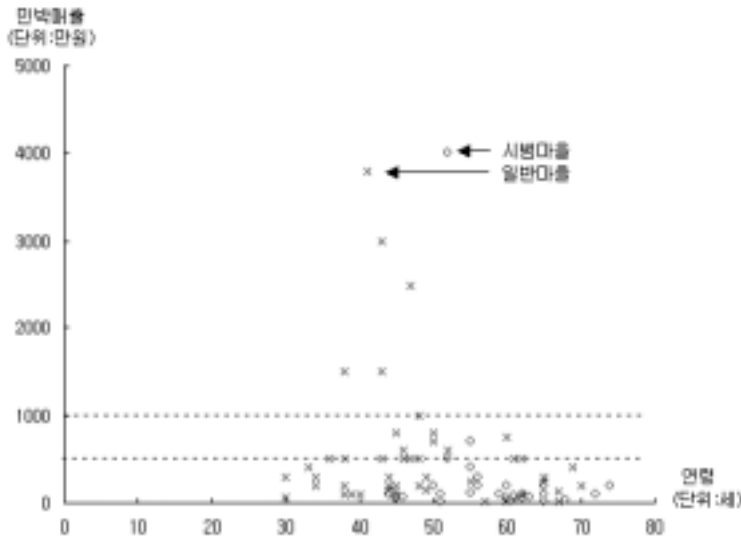


표 6 시범마을과 일반마을 농촌민박 경영체들의 민박 매출액 비교

단위: 1만원

구분	시범마을 (N=32)	일반마을 (N=48)	표준편차		t	df	유의도	평균차
			시범마을	일반마을				
연간 숙박 서비스 매출액 평균	178.6 (65.7%)	307.2 (54.8%)	612.2	396.0	-1.142	78	.257	-128.6
연간 식사 서비스 매출액 평균	47.8 (17.6%)	205.6 (36.7%)	48.6	538.5	-2.018	48.1	.049*	-157.8
연간 농산물 직판 매출액 평균	45.5 (16.7%)	47.8 (8.5%)	103.1	74.5	-.116	78	.908	-2.3
합계 (연간 민박 총수입)	271.9 (100.0%)	560.6 (100.0%)	696.2	753.5	-1.730	78	.088	-288.7

* p < .05

이가 매우 젊고 민박을 통한 소득⁶도 더 많
이 얻고 있었다.

이와 같은 민박 경영을 통한 소득은 어떤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들을 매개로 창출되
고 있는가? 농촌관광 마을의 민박 경영체들
은 대체로 숙박, 식사 제공, 농산물 직판을
매개로 내방객들로부터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6). 그런데 전체 매
출액 중에서 이들 세 가지 항목들이 각기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시범마을과 일
반마을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이 숙박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농촌관광 시범마을에서 농산물 직판을 통
한 소득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농가들이나
정책당국 사이에 크게 형성되어 있는 것에
비해 일부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기
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박경영을 통해 얻는 수입이 연간 500
만원 이상이 되려면, 경영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 외에도 추가적인 투자가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책
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일반 민박마을에서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상대적으로 높은 민
박소득을 얻고 있는 경영체들은 주로 숙박
시설에 대한 투자를 통해 규모를 확대하고
숙박과 식사에 중점을 두는 ‘농업에서 서비
스업으로의 이동’ 경향을 보이고 있다.

3.2.1. 농촌민박 경영에 대한 전망과 투자 확대 의향

시범마을과 일반마을 사이에서 나타나는
농촌민박 경영주들의 연령 차이는 민박에
대한 상업적 전망에서도 차이를 낳고 있다.
민박 수요가 매출로 현실화되는 구체적인
매개는 내방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숙박
시설의 규모이다. 또한 농촌민박에 있어 가
장 큰 투자수요가 존재하는 부분 또한 숙
박시설의 규모이다. 일반마을과 시범마을
의 민박경영주들이 갖고 있는 농촌민박의

⁶ 이 글에서 ‘민박소득’이란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한 숙박시설 제공, 식사 서비스, 농산물 판매를
통해 얻는 소득의 합계를 말한다. 일부 농촌관
광 마을의 경우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
격을 지불받는 경우도 있으나, 그 같은 경우는
물고 그것을 통한 매출액 또한 매우 작아서 여
기에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상업적 전망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 민박경영의 확대 여부에 대한 장래 계획을 조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자신의 민박경영 규모와 관련하여 장래 계획을 물어본 결과,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응답을 한 경영주는 거의 없었다(전체 응답자 104명 중 2명). 그를 제외한 나머지 102명의 응답 결과를 시범마을과 일반마을로 구분하여 교차분석한 결과, 일반마을의 경우 향후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영주가 현재 규모로 유지하겠다고 응답한 경영주들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범마을에서는 현재 규모로 유지하겠다는 응답과 확대하겠다는 응답 빈도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결

과는 통계적으로 크게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시범마을과 일반마을의 민박경영주들 사이에 농촌민박의 상업적 전망에 대한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다.

한편, 두 집단 간의 농촌민박에 대한 상업적 전망 차이는 ‘스스로 생각하는 적정 규모의 객실 수’에 대한 응답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일반마을의 농촌민박 경영주들이 생각하는 숙박시설의 적정 규모는 시범마을의 경영주들에 비해 현저하게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범마을의 경영주들 중 거의 절반 가까운 수(응답자 48명 중 22명)가 1-2개의 객실 수가 적정규모라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에, 일반마을의 경우는

표 7 농촌민박 경영주들의 향후 민박경영 계획

향후 민박경영 계획	시범마을 (N=48)	일반마을 (N=54)	계 (N=102)
확대	16 (15.7%)	25 (24.5%)	41 (40.2%)
현재 규모로 유지	32 (31.4%)	29 (28.4%)	61 (59.8%)
계 (N=102)	48 (47.1%)	54 (52.9%)	102 (100.0%)

$\chi^2 = 1.776, p = .183$

표 8 농촌민박 경영주들이 생각하는 숙박시설의 적정 규모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객실 수	시범마을 (N=48)	일반마을 (N=56)	계 (N=104)
1-2 개	22 (21.2%)	8 (7.7%)	30 (28.8%)
3 개	11 (10.6%)	7 (6.7%)	18 (17.3%)
4 개	4 (3.8%)	6 (5.8%)	10 (9.6%)
5-6 개	11 (10.6%)	35 (33.7%)	46 (44.2%)
계 (N=102)	48 (46.2%)	56 (53.8%)	104 (100.0%)

$\chi^2 = 19.846, p < .001$

응답자들 중 60% 이상(응답자 56명 중 35명)이 5-6개의 객실 수가 적정규모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3.2.2. 농촌관광 마을 육성정책의 제약 조건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일반마을과 시범마을의 농촌민박 경영체들 사이에 발견되는 차이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마을의 경영주들이 시범마을의 경영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이 젊다. 둘째, 일반마을의 농촌민박 경영체들이 시범마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민박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셋째, 일반마을의 농촌민박 경영체들이 시범마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으며 투자의향도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차이점은 현재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농촌관광 마을 육성 정책의 제약조건과 잠재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 정책의 성격을 명료하게 규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는 농촌관광 마을들의 젊은 농가 구성원들은 대체로 전업농 활동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유희 노동력이라 할 수 있는 노인 농가 경영주들이 정책사업을 계기로 민박경영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⁷ 이들 노

령화된 민박 경영주들은 숙박시설 증개축 등과 같은 고정자본 투자의 리스크를 젊은 경영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일정 정도의 안정된 수요 증대 추세가 확인된다 할지라도, 시범마을의 노령화된 민박 경영주들은 개인적으로 크게 느껴지는 리스크를 부담하면서까지 ‘농촌민박 경영 규모의 확대와 전문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일반마을의 젊은 경영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농촌관광 수요 전망이 밝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농촌민박 매출액의 대부분을 숙박료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숙박시설 규모 확대와 품질 제고를 위한 고정자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수요가 농촌민박 경영체 내에서 가치현실화되기 어렵다. 숙박시설 규모의 확대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도 마을 단위 농촌관광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는

은 농민이 있다면 거의 십중팔구는 시설체소니 머니 해서 농사를 정말 열심히 짓는 사람들일 것이 뻔한데,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관광을 한답니까? ...(중략)... “여러분들 지금 하는 사업이, 농촌 현실이 어려워 가고 있는데, 연세가 들어가면서 아무 할 일이 없다면 정신이 늙는다고 생각해요. 정신이 늙으면 육체도 늙고 빨리 조로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먼가 내게도 할 일이 있다 생각이 들면 삶의 의욕도 생길 거고 덜 늙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노후생활을 위해서라도 꼭 해봅시다.”라면서 설득을 시켜 갔는데, 그래서 일단 시작했는데 작년 여름방학 때까지만 해도 다들 안된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반대했던 분들이 지금에 와서 “내 거도 뭐 좀 [농산물을] 팔아다구.” 그러면서, “그래도, 예, 손님이 생각보단 많이 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 J마을 지도자 김○○씨의 면담 내용 중에서 (2003년, 4월 23일)

⁷ 조사 중에 만났던 한 마을 지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농촌관광 마을 사업의 주요 참여 계층이 노인들이라는 사실이 함의하는 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요즘 테마마을이다, 녹색체험마을이다 해서 많이들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곳은 마을에 젊은 농민들이 많이 있어서 다른 데보단 이 관광사업을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계획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말리고 싶습니다. 노령화된 농촌에서 젊

유리한 방안으로 ‘농산물 판매형 농촌관광 마을’이 이야기되기도 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그러나 농산물 판매를 통한 매출이 숙박 매출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농산물 판매형 농촌관광 마을’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 그리고 종종 성공사례로 거론되는 ‘농산물 판매형 농촌관광 마을’의 경우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마을들의 경우, 대체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의 형태로 마을 농가들이 이미 조직화되어 있으며, 그것을 기반으로 도시민과 지속적인 직거래활동을 벌여 온 경험이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농촌관광 마을 육성정책 시범마을들 대부분의 경우에, 그 같은 형태의 농촌관광 마을 사업 전략을 수용하고 추진하는 것은 높은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숙박시설을 증개축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⁸

4. 결 론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주로 마을 단위에서의 민박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농촌관광 육성정책은 적어도 조사대상 마을의 소농 경영체들을 중심으로 연간 약 180만원 정도의 농외소득 증대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경영체들의 경영다각화는 정책사업이 시작되기 전 시점에서 일반 민박마을의 농업관광 경영체들과 비교할 때의 평균적인 소득격차 약 300만원 중 60% 정도를 메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주목할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들 경영체들의 농외소득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무엇보다도 경영체들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의 변인들, 예를 들면 농촌관광 시장에서의 수요 변화가 작용할 것이다. 그 밖에도 정부 정책 시범마을의 농업관광 경영체들에게 내재하고 있는 제약요인들도 있을 것이다.

정부 정책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농촌관광 마을의 민박 경영체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마을 내 비민박 농가 경영주들이나 정책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통상적인 민박마을의 민박경영주들과 비교할 때 연령이 상대적으로 고령화되어 있다. 둘째, 가족구성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복합취업 농가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셋째, 마을 내 비민박 농가 경영체들이나 정책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마을의 민박 경영체들과 비교할 때, 평균 경지면적이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시범마을 농촌민박 경영체들의 특성은 투입가능한 노동력이 제약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경영다각화의 지속적인 진전과 농촌관광 경영의 확대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다.

한편, 농촌관광 마을 민박 경영주들의 상대적인 고령화와 빈약한 복합취업 구조는

⁸ 본 연구에서 도별로 무작위로 선정된 10개 조사대상 시범마을 중, 마을 내 주민들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등의 생산자 조직이 존재하는 경우는 1개 마을이었으며, 그 마을만이 나머지 9개 마을에 비해 농산물 판매 매출액이 민박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높았다.

농촌관광 시장에 대한 일반적 전망이 밝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주체들의 투자의향을 축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농촌관광 마을 민박 경영체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잠재수요에 대한 전망이 아무리 밝다 해도 민박 경영확대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농촌민박 경영체들의 자발적인 시설 투자를 쉽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농촌관광 마을 육성정책의 목표는 현재의 고정자본 투자 규모를 토대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농촌관광 마을 민박경영체들의 지속적이고 선형적인 성장을 막연히 기대하고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농업경영 다각화의 측면에서 적정 수준의 농외소득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 목표 수준은 아마도 일반적인 민박 마을의 농촌민박 경영체들과 소농들을 중심으로 조직되고 있는 농촌관광 마을의 농촌민박 경영체들 사이의 소득 격차를 보완하는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강신겸. 2002. “마을단위 녹색관광개발의 추진과 과제.” 『관광농업연구』 9(1). pp.

118-13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개발모형 정립과 실용화 방안』. 농림부 연구보고서.
 박시현. 2002. “한국형 농촌관광 정착을 위한 정책 과제.” 『관광농업연구』 9(1). pp.61-79.
 박시현 등. 2003. 『우리나라 농촌관광 발전방향 및 방안』. C2003-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기환. 2001.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정책의 발전방향.” 『농촌경제』 24(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Bryden, J. and Bollman, R. 1999. “Rural Employment in Industrialised Countries.” *Agricultural Economics*. Vol.22, pp.185-197.
 Fuller, A.M. 1990. “From Part-time Farming to Pluriactivity: a Decade of Change in Rural Europe.” *Journal of Rural Studies*. Vol.6.
 Kinsella, J., Wilson, S., de Jong, F. & Renting, H. 2000. “Pluriactivity as a Livelihood Strategy in Irish Farm Households and its Role in Rural Development.” *Sociologia Ruralis*. Vol.40. No.4. pp.481-496.

■ 원고접수일 : 2003년 10월 24일
 원고심사일 : 2003년 10월 29일
 심사완료일 : 2004년 3월 15일